

2022년 7월 17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사도행전 Acts 13:1-3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Now there were in the church at Antioch prophets and teachers, Barnabas, Simeon who was called Niger, Lucius of Cyrene, Manaen a lifelong friend of Herod the tetrach, and Saul.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Then after fasting and praying they laid their hands on them and sent them off.

안디옥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곧 “바울”이라는 익숙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불리는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세 사람인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입니다.

#### 1.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시므온이 누구입니까? FF Bruce는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연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 2.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한 우리는 구레네 사람, 하면 우리는 구레네 시몬 그 사람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시므온”이 아니라 “루기오”이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아닐지라도, 그는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의 영향 아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우선 가족구원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힘써 사역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그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에서 복음전파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자와 교사로 사역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의 열매는 우리를 부르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루기오를 비슷한 발음의 “누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누가는 제2차 선교여행 때부터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 3.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Herod Antipas, 4 BC-AD 39)은 세례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며, 예수님의 재판 때 참여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지난 주에 공부한 헤롯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헤롯 아그립바 1세(Herod Agrippa I, AD 41-44)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젓을 먹고 자랐던 “마나엔”은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삼촌 격입니다. 그가 “선지자요 교사”로 부르심 받아 안디옥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역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는 “모세와 바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는 모세와 함께 궁중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건진 공주를 “핫셉수트”라고 한다면, 이 바로는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모세와 이 바로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지만 궁중에서 “형제”로 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형제들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은 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안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y, 1821-1881)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벌써 고전이 된 명작입니다. 표트르 까라마조프에게는 장남 드미트리기가 있습니다. 음탕하고 시적 감수성도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복잡한 성격입니다. 차남 이반은 철저한 무신론자이며 합리주의자입니다. 도적적 허무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자 스메르자코프는 비열한 지혜가 있습니다. 유산상속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막내 알료샤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정결합니다.

알베르트 까뮈는 “20세기 진정한 예언자는 칼 마르크스가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였다”고 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보다 일곱 살 아래였던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1828-1910)가 한 말은 놀랍습니다: “작가들은 허영심이 많다. 적어도 나는 그런 작가였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와는 견주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 미완성 소설이 그렇게 많이 읽힌 것은, 까라마조프 집안이 보통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안자랑”이 무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어땠거나, 형제자매가 어떤 사람이거나 하는 자랑은 오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집안에서 악한 자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천한 집안에서 뛰어난 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집안에서 친일파가 나오고, 무당의 집에서 백낙준 박사 같은 신실하며 걸출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족보나 인맥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밝히 기록한 율법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형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들이 잘못된 일로 아버지를 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 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The soul who sins shall die. The son shall not suffer for the iniquity of the father, nor the father suffer for the iniquity of the son. The righteousness of the righteous shall be upon himself, and the wickedness of the wicked shall be upon himself.

에스겔 Ezekiel 18:20

이와같은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다른 예언서에도 밝히고 있는 진리입니다.

같은 안디옥 교회에 다섯 명의 “선지자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다섯이 모두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드리며 금식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들 중에 두 명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이 거기 달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르는 것을 추적하는 데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유대인들 미드라쉬나 위경에서는 “그 까닭”을 추적합니다. 많은 페이지의 종이를 할애하는데,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자격 운운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들이 어째서 세계선교사역에 첫 번째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는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입니다.

#### 1. 바나바

그는 구브로(Cyprus)에서 난 레위족이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세례를 받고 부흥할 때부터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Sold a field that belonged to him and brought the money and laid it at the apostles' feet.

사도행전 Acts 4:37

회심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교회에 갔을 때, 다들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돕는 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 2. 사울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의심하던 아나니아(Ananias)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르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But the Lord said to him, “Go. For he is a chosen instrument of mine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kings and the children of Israel.”

사도행전 Acts 9:15

이제 세월이 흘러 그가 예루살렘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사역하던 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며 사역하는 모든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전혀 새롭게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9년부터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금문교회가 그때부터 관여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하여 보내는 일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안수하여 보내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인간이 사용될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모든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약점을 보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래 쓸모없는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그 일 자체가 감사입니다.

안디옥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안디옥교회는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던 중이었습니다. 금식의 일면을 봅니다. 식사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금식을 하되 “구제”와 “섬김”이 없다면 금식의 큰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Is not this the fast that I choose: to loose the bonds of wickedness, to undo the straps of the yoke,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and to break every yoke? Is it not to share your bread with the hungry and bring the homeless poor into your house; when you see the naked, to cover him, and not to hide yourself from your own flesh?

이사야 Isaiah 58:6-7

이런 점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구제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바 있었던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위 “제1차 선교여행”도 그 동기가 “금식”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제와 섬김”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오늘 금문교회는 팬데믹의 영향 아래 세계의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여 우리의 필요를 줄이고 그로써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교회는 기도하면서 올해 중에 흑시 후파 원주민 선교를 재개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 아프리카 우물 프로젝트를 위해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잘 준비해야 할 줄 압니다. 아프리카에 발을 딛는 성도들이나,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나 한 결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훈련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선교사역으로 떼어 부르실 것입니다. 그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따로 떼어. 헬라어는 “아포리조”입니다. 이것은 “성별”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경우처럼, 사역자는 지갑도 두벌 옷도, 여분의 신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가기 전에도 현지에서도!

우리는 늘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의 보내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의 뜻을 따라 안디옥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파송합니다. 금문교회가 오늘 파송하는 귀한 가정의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온 세상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